

西歐 의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였던 NATO가 갑자기 새로운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영국 및 다른 유럽국적의 사람들이 바그다드로 이송되어 예측 불가능한 독재자의 의향만을 기다리게 됨으로써, 「평화배당금」이라는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8년간의 전투로 단련되고,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유전(油田)의 대부분을 점유하여 솜통을 조으려고 하는 중동의 최강 전력을 상대로 나토는 스스로의 방위를 모색하고 있다.

최초의 행동은 미국이 취해야 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위협은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이 분명하였고, 당연히 부시 대통령은 부담과 책임을 공유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우방들이 가능한 빨리 이러한 조치에 동참해야 하며, 이것이 부유한 백인국가들이 가난한 갈색인종 국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랍국가들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문제는 최초의 행동이후 8일만에 명확하게 되었다. 8월 10일 브뤼셀에서 회동한 외무장관들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나토의 집단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나토는 이에 대항할 것임을 단호하게 천명하였다.

군사적인 행동은 유럽과 북미에 국한하는 북대서양조약의 제약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나토전체의 입장으로 취할수는 없지만, 나토는

위협을 받는 어떤 회원국에게도 가장 분명하고 완벽한 지원을 할 것이다. 터어키의 영토는 비록 많은 부분이 유럽밖에 있기는 하지만, 1951년 나토로의 귀속을 정한 조약의정서에 의해 이곳은 완전히 보호되고 있다.

회의 폐막시 Manfred Wornier 사무총장은 『쿠웨이트의 독립과 주권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며, 이 지역내 다른 모든 나라의 독립과 주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 나토는 회원국의 국민들이 즉시 출국할수 있도록 해줄 것도 이라크에 촉구하였다.

제임스 베이커 美 국무장관은 이라크의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반응—여기에는 나토의 모든 회원국들이 다른 방법으로 기여했다—은 놀라웠다고 말하였다. 『나토는 현재의 위기에 분명한 결의와 결속을 보여주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행동에 나선 모든 국가로부터 강력한 지원이 보장되었으며, 여기에는 조건이 없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독일, 벨기에,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하기로 발표하였다고 말하였다.

또 그는 현재의 위기에서 기지사용에 적극 협력하였던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도움도 언급하였다.

두번째로 아랍군이 공동행동에 참가하는 문제는 더욱 민감한 것이다. 아랍의 많은 사람들은 이라크의 행동을 인정할뿐 아니라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아라비아의 과거 영광을 되찾아줄수



있는 지도자로 보고 있다.

그는 기회를 재빨리 포착하면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聖戰이라는 잊혀진 꿈으로 환상을 일으켰으며,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부드럽고 부유한 서방측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다행스럽게도 대다수 사람들은 더욱 현명하고 고결한 시각을 지녔으며, 침략의 실체—즉 이것은 무서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야심에 찬 독재자의 권력장악이며, 이는 어떤 댓가를 치루더라도 저지되어야 함—을 파악하였다.

8월 10일 카이로의 정상회담을 위해 회동한 아랍국가의 대표 20명중 12명은 이라크의 침략에 대비하여 사우디 아라비아와 다른 페르시아만 국가들에 아랍군을 보내기로 합의하였다. 바로 이어 이집트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즉각적인 대응에 국제사회가 여느때와 달리 일치를 본 것은 이 시대의 희망적인 상징이었다.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간의 새로운 협력관계는 튼튼한 기반을 내린 것으로 보여졌다. 최초로 행해진 활동은 아주 고무적이었다.

침공이 있는 다음날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공동으로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곳에서는 제임스 베이커 美 국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이 회의중이었으며, 이들은 이라크에 대한 모든 무기인도를 중지하는데 국제사회가 그들과 동참하도록 호소하였다.

또 그들은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철군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국가들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다.

그 이후 각국은 신속한 움직임을 보였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되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비난하였다. 중국을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과 12개 비상임이사국중 10개국 이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쿠바와 예멘은 기권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국이 이라크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하였다.

유럽공동체 12개국은 이라크와 쿠웨이트로부터의 원유수입에 대한 금지조치를 취하고 무기수출금지조치에 행동을 같이하였으며, 자

국내의 이라크와 쿠웨이트 자산을 동결시켰다. 영국, 프랑스와 미국은 Oman海와 인도양의 해군을 이동시켜 페르시아만의 해군력을 강화시켰다. 소련도 해군 戰隊를 파견하였다.

8월 6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이라크 원유수출에 대한 금지조치를 포함하여 무기수출입 금지 및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다음날 이라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일한 나토국가인 터키가 이에 따라 자국의 지중해 원유터미널에서 이라크 원유의 선적을 모두 중단시켰으며, 의약품 및 주요 식료품을 제외한 모든 교역을 금지시켰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관통하는 다른 이라크 송유관의 홍해 터미널에서도 선적은 되지 않았다. 전 세계의 국가들이 UN 安保理의 결의안을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UN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도 이에 참가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8월 8일 부시 대통령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독립이 미국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되며, 그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페르시아만에 미군을 파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미군 선발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이 지역에 공군 및 해군을 배치할 뜻을 밝혔고, 부대 이동이 시작되었다.

프랑스는 페르시아만의 자국 공군과 해군을 증강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대서양과 지중해의 프랑스 해군은 준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서독은 소해정 戰隊를 東지중해로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벨기에,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가까운 장래에 행동을 취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서유럽 연합회의도 회원국의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브뤼셀의 북대서양협의회 회의에서 베이커 장관은 가장 중요할수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토는 페르시아만 사태 훨씬 이상으로 중요성을 띠고 있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 나토는 무력침공이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제를 제기하였으며, 새로운 시대에 함께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換)

<Miltech 90/9>